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 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9월 30일(금) 15시 30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6. 9. 30 (금)	담당부서	철강화학과
담당과장	김종철 과장(044-203-4280)	담 당 자	이재석 사무관 (044-203-4285) 한종호 사무관 (044-203-4284)

"범용 소재" → "글로벌 첨단·고부가 소재"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
철강 · 석유화학 산업, 경쟁력 강화 밑그림 제시

<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5대 핵심전략」 >

❶ 친환경 및 정보기술(IT)화를 통한 설비 경쟁력 강화
❷ 경쟁우위 품목의 인수합병(M&A) · 투자 확대를 통한 고부가화 유도
❸ 경쟁열위 ·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
❹ 고부가 철강재 및 경량소재 등의 조기 개발
❺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부적합 철강재 유통 방지

<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5대 핵심전략」 >

❶ 현행 납사분해설비(NCC) 설비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와 O&M 서비스사업화 지원
❷ 경쟁열위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
❸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첨단정밀화학산업 육성
❹ 고부가 정밀화학산업 성장을 위한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
❺ 사고·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석유화학단지 조성

□ 정부는 '16. 9.30(금) 15시, 정부서울청사에서 **유일호 경제부총리** 주재로 열린 '**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**'*에서,

* 9.30(금) 15:00~16:00,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

○ **「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」**과 **「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」**을 **확정 · 발표**

□ 오늘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9.28.(수) **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**'제3차 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'**에서

○ **'철강산업'**과 **'석유화학산업'**의 **경쟁력 강화방안'**을 논의

1.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배경 및 의의

□ '철강산업'과 '석유화학산업'의 **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한 배경과 그간 경과**를 살펴보면,

○ 지난 6월 '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'에서 **'업계 자율로 관련 업종에 대해 외부 컨설팅을 추진**했다. 정부는 **그 결과를 참조해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'**는 기본원칙을 결정

○ 업계는 **철강협회**와 **석유화학협회**를 중심으로 공신력 높은 세계적인 **컨설팅 회사를 선정**해 업종별로 국제적인 **수급전망**과 **설비, 품목에 대한 경쟁력 진단**을 실시

* (철강) 보스톤컨설팅그룹(BCG), (석유화학) Bain&Company

○ 이와 동시에 **업계 및 산·학·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**하고 **해외사례도 면밀히 분석**하는 한편, **민간 컨설팅 결과도 최대한 참조해** 이번 범정부 대책을 마련

□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은 해당 **산업의 비전**과 **설비·품목별 재편 방향** 등을 **구체적으로 제시**함으로써 **산업별로 나아가야할 밑그림**을 **보여줬다**는데 그 **의의**가 있음.

□ 또한, **업계 자율로 추진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종합적인 경쟁력강화 대책이 마련**됨으로써 향후 관련 산업의 **선제적인 사업재편**도 **속도감 있게 추진**할 것으로 예상

2.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

< 5대 핵심 전략 >

❶ 친환경 및 정보기술(IT)화를 통한 설비 경쟁력 강화

❷ 경쟁우위 품목의 인수합병(M&A)·투자확대를 통한 고부가화 유도

❸ 경쟁열위·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

❹ 고부가 철강재 및 경량소재 등의 조기 개발

❺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부적합 철강재 유통 방지

< 설비경쟁력 강화 >

① 고로는 차세대 친환경 설비로의 전환을 지원

○ 고로는 **세계 최대규모**(포스코 광양·포항 세계 1, 2위), **최신 대형설비**(현대제철 당진) 등 **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**을 유지하면서,

* WSD(World Steel Dynamics) 경쟁력 평가 : **포스코 7년 연속 세계 1위**('10~'16년)

○ **국제적 온실가스 감축**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'17년부터 민관 공동으로 쇳물 생산을 위해 **석탄**(C) **대신 수소**(H_2)를 활용하여 **온실가스 15% 감축**이 가능한 **"수소환원제철공법"** 개발에 본격 착수

* '17년~'23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기술개발 완료 후, 고로에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

② 전기로는 원료 확보, 비용 절감 등 경쟁력 확보를 지원

○ **전기로는 고비용 구조, 고급 철스크랩 부족** 등으로 경쟁력이 미흡하고, 특히, **중소제강사**(철근, 형강 등) 경쟁력이 **취약하므로,**

* 대형社는 중소社 대비 원재료(철스크랩) 비용 2~5%↓, 제품가격(철근)은 1.5~3%↑

○ 고급 철스크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**철스크랩 유통·가공체계 개선**과 **대체원료 개발**을 지원

* 지역별·등급별 전문 철스크랩 유통·가공업체 육성방안 마련('17년 상반기)
* 거점별 철스크랩 전문 가공시범공장 지정 운영 추진 ('17년 하반기)

③ 정보가술(IT)을 활용한 '스마트 제철소' 보급을 통해 공정혁신을 지원

○ 특히, 표준화, 핵심기술개발 등과 함께, 중소 철강업체 대상으로 조업 자동화·품질관리 등 **지능형 조업시스템**을 단계적으로 보급

* 현 스마트공장 보급 프로그램(산업부)와 연계하여 중소 제강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('17년)

<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방안 >

① 경쟁우위 품목은 수출·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를 중점 지원

○ **판재류**는 가격·품질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, 차량 경량화와 대체소재 등장에 미리 대비해야 하므로,

- 기존 업체간 연구개발(M&A)과 **신규 투자**를 통해 **제품의 고부가화**와 세계 **시장개척**을 촉진하고,
- 미래자동차·항공기용 **초경량 철강제품, 타이타늄 등 경량소재**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(R&D), **첨단설비**에 대한 **과감한 투자**를 적극 지원

② 수요 침체 품목은 자발적인 설비 감축을 유도할 계획

○ **후판**은 조선 등 수요산업이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므로,

- 후판설비 감축·매각, 후판사업 분할 등을 통해 **단기적으로 현재 생산능력 1,459만 톤에서 업계 스스로 감축방안을 마련**하여 **적정수준으로 조정**하고,
- '20년까지 수요산업과 해외경쟁기업 동향을 감안, **추가 조정** 유도

○ **강관**은 **경쟁열위**의 **중소 사업자**가 **난립**(130여개)되어 있고, 북미 에너지 개발 수요 위축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되므로,

- **경쟁력을 확보한 강관업체 중심**으로 한계기업이 보유한 우수 설비, 숙련인력의 인수를 '기활법'을 통해 유도하는 한편,

- 유정용강관 등 **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**을 위한 **민관 공동 연구개발(R&D)**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국내 공기업의 협조하여 **실증·시범 적용** 추진

* 셰일가스 기술개발 완료 후('14~'17), 가스공사·석유공사의 캐나다·미국 소재 광구를 테스트베드로 활용 지원('17~'19)을 통해 실제 수출로 연계

③ 내수품목은 국내 수요 충당 수준에서 설비규모 유지 및 설비 개선

○ **철근, 형강**은 수입산 대비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**내수 수준의 설비를 유지**하면서, **불량·위조 수입재 유통방지** 등 시장관리에 역점

- 중장기적으로 **수입재와 경쟁여건** 등을 고려하여 **설비 조정**도 검토

< 고부가 철강재·경량소재 조기 개발 >

① 3대 분야 고부가 철강재 : 미래차, 에너지, 건설용

○ 고부가 철강재에 대한 연구개발(R&D) **대폭 강화 및 개발·실증 지원해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를 대폭 축소** ('15년 약 1.5년 → '18년 약 0.6년)

* 초고장력 강판, 다중소재 접합기술, 초내열합금강 등 총 8개 과제 완료(~'22년)

○ 특히, 개발 초기단계부터 **수요기업과 철강사간 협력**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(R&D)을 추진해 상용화 성공률 제고 ('14년 약 40% → '18년 약 50%)

② 3대 경량소재 : 타이타늄, 마그네슘, 알루미늄

○ 방산기업, 자동차 등 **수요기업과 철강기업, 대학, 연구소가 참여 하는 융합 얼라이언스**를 구축해 국가 연구개발(R&D)로 추진 ('17년 예타 진행중)

* '23년 타이타늄 기술 완전 자립화, 세계시장 점유율(마그네슘강판 1위, 알루미늄강판 5위)

③ '철강사+대학+연구소' 협력을 통해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신설

○ 철강 연구개발(R&D) 인력 양성을 위한 「**철강 산학연 지역거점 협력센터**」 지정

*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(산업부)와 연계하여 서울·전남(광양)·충남(당진) 등 소재 대학(석·박사) 지정 추진 (현재, 포스텍 철강대학원'이 유일)

○ '기업활력제고법'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기업이 **설비 감축** 추진 시, **유휴인력**에 대해 **전직교육** 실시 (철강협회 주관, 고용부 「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」 활용)

< 수출·통상·안전 대책 >

① 높아가는 무역장벽 극복 위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

○ 경쟁이 심한 범용 철강재 중심에서 **고기능 철강재, 기술·설비**(파이넥스공법(FINEX), 유휴설비), **운영관리(O&M)서비스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양화**

* 유휴설비(전기로·후판 등)는 설비와 함께 '운영 노하우 + 전문인력' 패키지 수출

* 중국('13.9월)·인도('15.3월)·이란('16.2월) 파이넥스공법(FINEX) 설비투자 거래조건협정서(MOA) 체결

○ **철강사와 수요기업의 협업***을 통해 국산 철강재의 **트랙레코드**를 확보하여 **해외 플랜트 시장**에 동반 진출**

* 철강사 + 수요공기업간 공동 기술개발·성과공유 양해각서(MOU) 체결 지원

** (사례) P사와 발전사가 협력, 내마모강(남부발전 석탄 이송설비), 내부식강(남동발전 탈황설비·열교환기 배관) 협력사업 추진 중

○ ❶ 수요기업 대상 **설명회** 개최, ❷ **신기술 인증**(NET, NEP)을 통한 **우선구매** 유도, ❸ **소재 규격** 개정*, ❹ **부품 연구개발(R&D)**** 등 병행 지원

* (예) 극저온 합금강의 액화천연가스(LNG)저장탱크에 적용을 위해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2조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(제품 실증 후 '17.상반기 신설 예정)

** (예) 'LNG배관용 **고망간강 배관부품 개발**' 지원 ('13~'16년)

○ 해외 **발전소·플랜트 설비 진출** 시, 국산 우수 철강재 **동반 수출** (한전·발전사 30여개 해외발전사업 등 대상)

* (사례) 인니 찌레본 발전소(중부발전), 중국격맹국제능원(한전 34% 지분투자) 등

② 선제적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, 안전한 철강재 유통환경을 조성

○ 최근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·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에 대한 **정부·업계·전문가 합동 대응체제** 운영

* 한국산 철강재 피소 건수 : ('91~'00) 10 → ('01~'10) 17 → ('11~'16.8월) 76

< **민관 합동 '수입규제협의회*'** 구성·운영 ('16.9.6 출범) >

- (구성) 산업부, 외교부 등 유관부처, 무역협회, 업종단체 등
- (활동) 분기별 1회 (현안 발생시 수시 개최)
  - 주요 수출국 수입규제 동향을 파악·분석하고 업계와 사전공유
  - 범부처 차원의 수입규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공동해결 노력 경주
  - 중소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·교육 등 제공

○ 정부간 다양한 **통상협의채널**을 다각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면서, **세계무역기구(WTO)정례규범회의***(연 2회) 등을 통해 **불합리한 수입규제 대응**

* 각국이 공조해 철강수입국의 불합리한 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)에 대해 세계무역기구(WTO) 협정 준수 촉구('16.4)

○ 최근 지진 등 재해·사고 증가로 인해 **안전한 철강재 보급**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**제품 개발** 및 **규격 상향** 등 조기 실시

* ①일반 철강재 대비 내진·내화 성능이 대폭 강화된 **고기능 철강재기술 개발** (산업부), **한국산업규격(KS) 표준 제정**(국표원) 지원

- **내진철근** : 기술개발 ('16.7월 착수, 고강도(항복강도 700MPa급), 인장/항복강도비 1.25배 이상) 한국산업규격(KS)표준 시행('16.9월, 400~600MPa급 내진철근, KSD 3504)
- **내화형강** : 기술개발 ('16.7월 착수, 520MPa, 고온(600℃)에서 상온 강도의 2/3이상)

* ② 건축물·시설물 등 **건설 구조용 철강재 한국산업규격(KS) 기준 상향** (유럽표준 수준) 조정
  - 24종 철강재 한국산업규격(KS)(형강·판재·강관) 개정 고시('16.10월) 및 시행('17.1월)

○ **공공 가로시설물**에 사용된 비규격 철강재에 대한 실태조사('17.상) 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규격 철강재로 교체 추진

* **안전펜스, 스테인리스(STS)가로등, 볼라드**는 단체표준에서 KSD 3536 사용토록 규정

○ 한국산업규격(KS) 위조, 원산지 허위, 품질관리 위반 등 **부적합 철강재 단속** 강화

3.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

< 5대 핵심 전략 >

❶ **현행 납사분해설비(NCC)의 국제 경쟁력 유지와 운영관리(O&M) 서비스사업화**

❷ **경쟁열위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유도**

❸ **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첨단정밀화학산업 육성**

❹ **고부가 정밀화학산업 성장을 위한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**

❺ **사고 ·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석유화학단지 관리**

< 현행 납사분해설비(NCC) 설비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와 운영관리(O&M) 서비스사업화 >

□ 우리나라 납사분해설비(NCC)는 ①**규모의 경제**, ②**연관산업간 연결**, ③**운영효율능력**의 측면에서는 **세계 최고 수준**이나,

○ 미국·중국·중동의 가스·석탄 기반 설비에 비해 원가경쟁력이 떨어지므로, **규모와 연계성, 운영효율을 더욱 강화**하고 **원료비를 절감**할 필요가 있음

① 3개 산업단지 내 업계 간 자발적 사업재편 추진

○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지별로 가능한 한 대규모의 **생산능력을 보유**하여 **고정비 감축, 소량의 부산물 활용** 등이 필요함

○ 업체간 배관을 통한 **연계성을 강화**하고 **수직계열화를 구축**하는 한편, **국내기업간 인수합병(M&A)를 통해 규모의 대형화**가 필요함

② 운영효율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관망 추가 신설 및 안전관리 강화

○ 산업단지내 배관 수요에 대해, **지상배관망을 실제로 사용할 현지 업체들이 주도**하여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함

* 산단내 기존 유틸리티 사업자를 활용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 실시('16년 산단공)

○ 기존 지하 배관망 **정보 데이터베이스** 구축과 안전관리체계 마련

* 지하매설 배관망 데이터베이스 구축('16년 하반기, 울산시),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('16년 하반기) 및 대책 마련 ('17년 상반기)

③ 운영관리 전문인력 교육과 운영관리(O&M) 서비스 지식재산권 보호 추진

○ **신규인력에 대한 운영관리(O&M) 과정**을 신설(한국폴리텍대 울산캠퍼스), **기존인력의 숙련도를 제고하는 프로그램** 운영(석유화학공정기술센터)

* (추진일정) '16~'17년 건물·장비 구축, '18년 교육 프로그램 실시 예정

○ 유출가능성이 높은 **설비운용(O&M) 기술·노하우**를 **지재권**으로 보호

* 운영관리(O&M) 기술에 지재권(기술특허·영업비밀)로 등록하여 법적 권리 보장 ('17.상반기)
* 산업부·특허청 공동 **「운영관리(O&M) 서비스 지재권 창출 설명회」** 개최 ('17.상반기)

④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가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원료비 절감

○ 석유보다 저렴한 원료인 **액화석유가스(LPG)에 대한 세제지원**과 **산유국과의 합작투자**를 활성화해 **원료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도입**할 계획

* 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(20원/ℓ) 면세 지속
*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(기본 3% → 할당관세 0.5%)를 지속 적용

< 경쟁열위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>

□ 국제 경쟁여건 변화에 대응해 **기업의 설비조정을 지원**함으로써 선제적으로 **사업재편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임**

① 테레프탈산(TPA), 폴리스티렌 등 공급과잉 품목의 자발적 설비 감축 유도

○ 단기간 내 설비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테레프탈산(TPA, 페트병 원료)와 **폴리스티렌**(PS, 장난감용 저가 플라스틱 소재)은 업계 스스로 감축 방안을 마련하면, 정부는 기활법과 연구개발(R&D)·금융·세제 등 관련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

* 테레프탈산(TPA)는 현 생산규모 585만 톤에서 연구개발(M&A) 등을 활용하여 적정 수준으로 감축
* 폴리스티렌(PS)는 이미 설비감축이 진행 중이나 현 73만톤의 설비 중 내수물량을 초과하는 설비 위주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감축 필요

② 합성고무, 폴리염화비닐(PVC)은 추가 증설 없이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을 유도

○ 합성고무는 **고기능 합성고무(SSBR)***, **엘라스토머**** 등으로 전환 유도

* **고기능 합성고무(SSBR)** 내마모성·탄성이 좋아 친환경타이어 등에 사용 (금호석유화학 생산기술 보유)

* **(엘라스토머)** 고무와 같은 탄성을 가진 고부가 합성수지 (LG화학, 대산산단 투자)

○ 폴리염화비닐(PVC)은 **특수목적용 클린 폴리염화비닐(Clean PVC***, **소방용 합성수지배관(CPVC)**** 등으로 전환토록 유도

* 클린 폴리염화비닐(Clean PVC): 배관 내부의 세균 증식이나 오염을 최소화해 초순수 라인에 사용

* 소방용 합성수지배관(CPVC):염소화 리염화비닐(PVC)로서 내화성·내열성이 우수하여 고온용·고급건축재 소재

<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첨단정밀화학산업 육성 >

□ 우리나라는 **범용 석유화학 부문**에 있어서 **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**을 보유하였으나, **고부가·고기능성 소재, 첨단정밀화학** 부문은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임

□ 이에, 석유화학산업이 고부가·고기능성 첨단소재로 발전하도록 **정부 연구개발(R&D) 투자**와 함께 **민간의 연구개발(R&D) 활성화**를 지원하여,

○ 현재 2% 수준에 불과한 **화학 연구개발(R&D) 비중을 '25년 선진국 수준인 5.0%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** 추진

① 3대 핵심기술 기술에 중점적으로 정부 연구개발(R&D) 투자 확대

○ **(미래 주력산업 소재)** 전기차, 항공기, 드론 등에 사용되는 **경량소재,** 고온·고압·극저온 등 **극한환경용 특수소재** (~'21년까지 9개 과제)

○ **(고부가 정밀화학)** 수입에 의존하는 염·안료 등 **산업용 화학소재,** 헬스케어용 **생활밀착형 기능성소재** (~'21년까지 11개 과제)

○ **(친환경 화학소재)** 환경·건강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 **무독성 소재**와 온난화 방지·오존층파괴 **대체물질** 개발(~'21년까지 7개 과제)

② 기업이 대규모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·사업화 지원 제공

○ 「조특법(제10조)」 상 **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연구개발(R&D) 세액공제** 대상에 고기능섬유, 하이퍼 플라스틱 등 **고부가가치 융복합 소재** 포함

○ 사업재편과 연계된 연구개발(R&D) 투자에 대해 **"신산업 육성펀드"** (3,000억 원) 지원

○ **기술보증기금 지원**이 용이하도록 **"중점지원 대상기업 업종"**에 **기능성 소재·고부가 제품**(농화학, 화장품 등) 추가

<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>

① 대산지역에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업체가 집적화된 특화단지를 개발

○ 영세하고 지역적으로 산재한 **정밀화학사업**을 **고부가 스페셜티 산업으로 육성**하기 위해서는 **규모의 대형화**와 **지역적 집적화**가 필요

○ 현재 대기업이 입주해 있고, 일반산단이 조성되어 있는 **대산 지역**을 **「첨단화학 특화산업단지」**로 조성하는 기본계획 수립 ('17년 상반기)

* **대산 4지역을 산업단지로 신규 지정, 대산 2산단과 연계하여 개발** 등

② 대·중소기업 화학연구소 집적단지(Chemical Valley)를 조성

○ **대덕 인근 '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**(연구개발특구)**'** 입주 지원

* **대기업 연구소**(현재 엘지(LG)화학, 한화케미칼, 롯데케미칼 등)**와 중소기업 연구소** (2개 이상 집단 이전으로 대전시 제공 토지매입비·시설투자비 등 인센티브 활용) **연계**

○ **유력 해외연구기관 유치**와 기존 연구기관은 **아시아 연구거점**으로 확대

< 산업단지 안전성 확보 >

① 사고재난 예방체계를 사전 보완하고,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

○ **'화학재난대응방재센터' 역할 강화, '재난대응매뉴얼'**을 매년 점검

○ 산단별 특성이 반영된 **'재난대응매뉴얼'**을 **매년 주기적으로 점검**하고 **자동보고시스템 확립**을 통해 현황 파악 및 대응시간 단축('16년)

② 대형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, 주요 인프라의 내진 성능 보강

○ 국내 석유화학 설비는 대부분 진도 6.5~7.0 수준으로 설계되었으나, **대형지진**에 대비하여 **7.0 이상**으로 **내진성능** 개선(~'20년)

○ **경제성** 있고 **폭넓게 적용** 가능한 **지진보강재 연구개발(R&D)** 강화(~'20년)

* 탄소섬유를 활용하여 건물·설비에 부착하는 지진보강재에 대한 예타 진행 중

4. 향후 추진일정

□ 정부는 금번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**미래 고부가가치 분야**에 대해서는 **❶ 연구개발(R&D), ❷ 인력양성, ❸ 금융·세제 지원** 등 3대 핵심 정책수단을 통해 **집중적이고 신속한 지원**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음

○ **공급과잉**으로 진단된 **분야**는 기업의 **선제적인 사업재편** 및 **기업활력법 지원**을 통해 **과잉설비가 해소**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적극 노력할 예정임

□ 향후, 정부는 **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 및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**를 통해 철강,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**진행상황**을 **계속 점검하고 보완**해 나가겠음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이재석 사무관(044-203-4285, 철강산업), 한종호 사무관(044-203-4284, 석유화학산업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